

20세기 스포츠웨어에 표현된 니트디자인

하 승 연 · 이 연 희* · 박 명 자*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조교수*¹*

The Knit Design Expressed in the 20th Century Sports wear

Seung-Yeon Ha · Youn-Hee Lee*¹ · Myung-Ja Park*
Graduate Student,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Assistant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¹*

(2004. 7. 13. 접수; 8. 6. 채택)

Abstract

Modern society is age of sports just as health and leisure became dominant concern, which has caused the fixation and development to sports wear considered as fashion for everyday dress. This paper focused on the development process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knit design expressed in the 20th century sports wear. The importance and direction of knit design in modern sports wear is expected. Style, items, fabrics, colors, details and top designers were analyzed in sports wear from the 1910's to 1990's. Sports wear can be categorized into two of the active sports wear and spectator sports wear. Since disappearance of division between ordinary wear and sports fashion in the 1970's, the functional wear of leggings, cycle shorts, exercise clothes, leotard, and leg warmer appeared. Vicennial developments of synthetic fibers and new fabrics have caused the great changes in knit design. Colors were vivid in the 1950's, metallic in the 1970's and neon in the 1990's. Sportive sense was expressed by various details. The dominant knit designers who expressed aesthetic characteristics to sports wear were Coco Chanel, Claire McCardell, Balenciaga, Andre Courrege, Pierre Cardin, Yves Saint-Laurent, Ralph Lauren, Donna Karan, and Giorgio Armani.

Key Words: aesthetic characteristics(미적 특징), sports wear(스포츠웨어), knit design(니트 디자인)

I. 서론

스포츠는 19세기 말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급속도로 발달하였다. 1990년대 후반 'sportism' 이라는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 안에서 스포츠는 fashion과 internet, pop music과 함께 현대사회를 결정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부상하였으며, 그 발달과 함께 스포츠웨어의 개념도 탄생하였다. 이제 스포츠는 더 이상 취미활동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부각되어 특정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고정적인 성 개념을 탈피하면서 모든 패션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¹Corresponding author ; Youn-Hee Lee
Tel. +82-11-224-9278, Fax. +82-2-2297-1190
E-mail : yiyihee@hanyang.ac.kr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현대 패션은 스포츠웨어의 캐주얼 아이템화가 일상화 되었으며 다기능성이 부각된 의류의 수요가 더욱 증가되고 있다. 스포츠웨어와 캐주얼웨어의 혼합과 스포츠웨어적인 디테일이나 이미지를 도입한 일상복의 확대 등의 현상으로 스포츠패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²⁾.

스포츠웨어에 관한 선행연구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성혜(1990), 정재희(1991), 노혜은(1992), 이영민(1993), 정정미(1996), 박경연과 유태순(1999), 임은안(1999), 하지수(2000), 김숙현(2001), 김지현(2002), 한은주(2002), 김이영(2003), 엄준희와 김민자(2003) 등에 의해 꾸준히 되어왔으며, 최근에는 포괄적인 스포츠웨어의 개념이 아니라 특정 스포츠웨어의 개념으로 범위가 집중된 연구(엄준희, 김민자, 2003), (김이영, 2003)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다. 그러나 스포츠웨어의 소재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니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니트는 신축성을 가지고 있어 인체의 활동 시에 직물로 구성된 의복에 비하여 편안한 활동상태를 유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각광 받는 의복 소재일 뿐만 아니라, 기능성과 패션성, 그리고 다양한 코디네이션 등의 조건을 겸비하여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

지고 있다. 특히 신축성이 좋은 니트는 스포츠웨어에 적합한 기능성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대 패션의 흐름인 '3-less' (Genderless, Ageless, Seasonless)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소재로서 니트가 새로운 가치를 부여 받으며 현대 패션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³⁾. 이러한 니트의 활동성과 다양성은 복종 간의 혼합과 스포츠웨어적인 디테일이나 이미지를 도입한 일상복의 확대 등의 최근의 트렌드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에 스포츠웨어에 나타난 니트디자인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스포츠웨어의 발달과정을 고찰하며, 그 발달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니트 디자인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20세기 스포츠웨어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니트 디자인의 고찰을 통해 현대 스포츠웨어에서 니트 디자인이 차지하는 중요도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1> 스포츠웨어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저자 (연도)	제 목	용어 / 키워드
정성혜 (1990)	미국 Sports wear에 관한 연구	스포츠웨어
정재희 (1991)	20세기 여성 스포츠에 관한 연구	스포츠웨어
노혜은 (1992)	1960년대 high fashion에 나타나는 Sportive Fashion	스포티브 패션
이영민 (1993)	스포츠웨어에 관한 연구	스포츠웨어
정정미 (1996)	하이패션에 나타나는 스포츠 스타일에 관한 연구	스포츠 스타일
박경연, 유태순 (1999)	스포츠웨어가 대중 패션디자인 요소에 미친 영향	스포츠웨어
임은안 (1999)	현대 스포츠 패션에 관한 연구	스포츠 패션
하지수 (2000)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스포츠룩에 관한 연구	스포티브 룩
김숙현 (2001)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스포티브 트렌드의 수용현황과 배경분석	스포티브 트렌드
김지현 (2002)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포티브룩에 관한 연구	스포티브 룩
한은주 (2002)	1990년대 스포츠 패션에 관한 연구	스포츠 패션
김이영 (2003)	스포츠웨어의 디자인 프로세스	액티브 스포츠웨어
엄준희, 김민자 (2003)	1990년대 이후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트렌드 분석	액티브 스포츠웨어

II. 이론적 배경

1. 스포츠웨어

1) 스포츠웨어의 개념

스포츠라는 단어는 뛰놀다를 의미하는 동사 데스포르테(desporter)의 데스포(desport)라는 고대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훗날 영국으로 유입되면서 16세기에 디스포(disport)로 변형되고 그 후 스포츠가 되었다. 스포츠는 주로 운동경기를 의미하며 좁게는 경쟁을 수반한 운동에서부터 넓게는 놀이에 이르기까지 신체활동을 통한 유희의 추구라 할 수 있다⁴⁾.

스포츠웨어는 크게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기능성과 활동성을 갖춘 의복인 액티브 스포츠웨어와 스포츠를 관전할 때 입었던 편안한 의복의 개념인 스펙테이터 스포츠웨어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김이영(2003)에 의하면 Play wear (Do sports Technical wear)와 Sporty wear (See sports Before & after wear)로 구분하고 있다⁵⁾. 최근에는 이 외에도 스포츠 룩(Sports Look), 스포티브 룩(Sportive Look) 등의 용어가 그 하위개념에 포함된다.

액티브 스포츠웨어는 19세기 말 미국에 의해 발전되어 왔으며, 야구, 농구, 배구 등과 같은 단체경기를 위한 통일된 의복형태(uniform)와 개인 스포츠인 테니스, 골프, 스키 등과 같이 의복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없어 자유로운 의복형태가 있다⁶⁾.

스펙테이터 스포츠웨어는 유럽의 상류사회에서 경마를 관람할 때 정장을 착용하였던 것에서 시작되어 1920년대 이후 보편화되기 시작한 개념으로서 스포츠를 관전할 때 입었던 편안한 의복을 의미한다⁷⁾. 관람자의 스포츠웨어는 캐주얼웨어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⁸⁾.

스포츠 룩은 1963년 추동 오프 꾸뛰르에서 방한복 형태를 칭한 것⁹⁾으로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기능성을 위한 형태, 소재, 디테일, 액세서리 등을 미적인 디자인 요소로 전환하여 응용한 정장(正裝)을 말한다¹⁰⁾.

1990년대 이후 현대 패션에서 보여지는 스포티브 룩이란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상복이나 타운웨어에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디자인 요소를 갖는 것이 외형적 특징이며, 디자이너의 감성으

로 재해석되어 트렌드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한 의복을 의미한다¹¹⁾.

스포츠 룩은 1970년대 중반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에서 카스텔 바작(castel bajac)이 컨셉을 설명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며 액티브 스포츠웨어를 그대로 타운 웨어화한 형태¹²⁾로, 애슬레틱 스포츠 룩(Athletic sports wear)이라고도 한다. 스키웨어, 조깅 수트, 테니스웨어, 다운 베스트, 다운 재킷, 아노락 등이 일반적이다.

2) 스포츠웨어의 발생 배경

스포츠패션이 생겨나고 대중적으로 확산되는데 영향을 미친 사회적 배경 중 대표적인 요인들로서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문화의 발달, 여성 해방운동, 기성복 산업의 발전을 들 수 있다.

첫째,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여가와 노동은 분리되었다. 1950년대 데이비드 라이스만(David Reisman)을 비롯한 사회학자들은 레저(leisure), 레크레이션(recreation), 관람문화(spectation)를 미국의 주요 이미지로 꼽을¹³⁾ 정도로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여가문화가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유급휴가제와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대중들이 스포츠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스포츠패션이 캐주얼화 되는 계기가 되었¹⁴⁾으며, 1970년대 부터 인식되어온 건강에 대한 관심은 80년대에 들어와 더욱 고조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 고령화가 심화되고, 젊음에 대한 관심이 노년층을 비롯한 대중에게 건강관리와 레저 활동으로 나타났다¹⁵⁾.

둘째, 경제력과 교육을 바탕으로 한 여성들의 스포츠에 대한 열렬한 참여는 그들을 육체적, 사회적으로 자유롭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¹⁶⁾.

1920년대 자동차의 보급과 함께 여성의 스포츠 열은 높아지고 바지는 스포츠웨어로 필수품이 되었¹⁷⁾으며, 1960년대 여성고용의 확대와 경제력을 확보한 여성들은 스포츠와 레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스포츠 관련 상품들의 수요가 증가하였다¹⁸⁾.

셋째,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미국 기성복업계는 스포츠웨어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스포츠패션을 선보이면서 유럽과 다른 독립적인 패션 산업체계를 확립해 나갔다. 특히 1970년대에는 프레타 포르테에서 스포츠룩

이 선보인 이래 스포츠패션은 패션계의 주된 테마 중 하나로 등장하였다¹⁹⁾.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문화와 자유롭고 편한 옷에 대한 선호, 실용적인 패션추구의 영향으로 기능성 위주의 스포츠패션이 스트리트 패션으로 전환되었다²⁰⁾.

2. 니트 디자인

1) 니트의 개념

니트를 뜻하는 의미로는 재료와 기법을 불문하고 모든 것의 편조 직물을 가리키지만, 좁은 의미로는 실 또는 끈 상태의 소재에 의하여 코(Loop)를 만들어 연결하여 선이나 면 상태로 구성하는 수법이나 작품을 뜻한다²¹⁾. 직물이 날실과 씨실의 교차에 따라 만들어지는데 비해, 니트는 가로 또는 세로의 어느 한쪽 방향의 실을 사용하여 루프를 차례로 이어가서 편물로 된다. 따라서 실의 형태로 된 모든 재료는 어느 것이나 편물재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용구나 뜨는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조직이 형성되며 용도도 다양하다²²⁾.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개념으로는 일반적으로 동력기계에 의한 것은 메리야스 또는 니트라고 불리는 반면 직물상태의 것은 트리코트, 저지 등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업계 또는 사회일각에서 메리야스를 니트라 부르는 경향이 있었으며, 필요에 따라 니트 산업, 니트화, 니트웨어라는 합성어도 등장하게 되었다. 니트라고 하면 종래의 내의 등으로만 알아왔던 메리야스와는 달리 스웨터(sweater)류, 저지(jersey), 외의(外衣)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니트는 편포와 니트웨어로 대별되는데, 전자는 의료용, 비의료용으로서 제품화되기 전의 천을 말하며, 후자는 편물로 만들어진 의복의 총칭이다²³⁾.

2) 니트의 종류와 특성

니트는 크게 가로방향의 코를 만드는 위편과 세로방향으로 코를 만들어가는 경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정과정에 따라서는 원단의 상태로 되어 재단과 봉제의 공정을 거치는 편직물과 처음부터 형태를 이루어가며 짜는 성형 니트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진다²⁴⁾.

이 중 위편은 환편과 횡편으로 나누어지는데, 환편은 내의, 스포츠웨어, 양말, 스타킹 등에 많이 쓰이고 횡편은 스웨터, 가디건, 수트, 원피스 등에 활용된다. 경편은 생산성이 높고 위편과 직물의 중간과 같은 튼튼한 편지를 만들 수 있어 내의, 외의 외에 커튼, 쿠션 등에 사용된다²⁵⁾. 이전에는 니트가 주로 방한용이나 내의류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그 용도가 직물을 능가할 만큼 다양화되어 외출복, 통근복, 여행복 뿐 만 아니라 장갑, 양말, 머플러, 핸드백 등의 액세서리로 사용되기도 하며, 그 외에 쿠션, 식탁보 등의 실내장식품이나 액자나 스크린, 벽걸이 등의 수예 작품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²⁶⁾.

니트는 신축성, 유연성, 다공성과 함기량, 다양성 등, 스포츠패션에 적용되기 좋은 특성과 함께, 런(run) 현상과 컬 업(curl up)현상, 내마찰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²⁷⁾.

Ⅲ. 연구방법

이론적 배경과 사진자료는 국내외의 복식사와 패션 관련 참고문헌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스포츠웨어에 나타난 니트디자인의 사진자료 107장중에서 패션전문인 5인에 의하여 시각적으로 니트임이 확인되는 60장의 사진을 최종 추출하였다. 스포츠패션에 대한 분석이 문헌에 제시된 경우에는 내용을 참조하였고, 분석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분석대상 사진을 모아놓고 빈도수에 따라 미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Fiore, Ann Marie and Kimle, Patricia Anne (1997)²⁸⁾과 김지현(2002)의 분석틀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를 보충하여 형태, 소재, 색상, 아이템, 디테일, 대표적 디자이너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소재는 니트의 다양함의 특성상 종류와 조직 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스포츠웨어에서 니트 디자인이 나타나기 시작한 191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20세기로 제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1910년대

활동적인 스포츠용으로 착용된 의상은 아직 제한되었으나 더 편안해졌으며, 니트 가디건 재킷과 이전보다 짧아진 스커트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활동의 자유를 주었다²⁹⁾ <그림1>. 한편 제1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 니트 공장 사장인 Carl Janzen은 고무편으로 짜여진 몸에 꼭 맞는 수영복을 생산하였으며, 이것은 수영선수들 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³⁰⁾. 제1차 세계대전 중반에는 스포츠웨어를 디자인하기 위한 ‘스포츠 하우스’가 세워졌으며 프랑스 전선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활동성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하우스는 매우 유행하였다³¹⁾.

1910년대의 스포츠패션에 나타난 니트디자인의 형태를 살펴보면 V넥 또는 라운드넥의 앞트임 재킷 형태로써 소매는 손목까지 오고, 몸길이는 엉덩




이 둘레선 까지이다<그림2>. 니트의 종류는 모두 횡편이며, 조직에 있어서는 몸판은 평편으로, 손목과 목은 고무편으로 짜여있다. 아이템은 상의로서 가디건 재킷이 테니스복, 골프복, 아이스하키복, 스케이트복 등으로 이용되었으며, 니트로 된 원피스 형태의 남, 여 수영복이 보여진다. 특히 의례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의 골프는 하루 종일 입을 수 있는 의상을 요구하였는데, 남성의 경우는 가디건 재킷과 셔츠, 니커보커즈가 착용되었다. 디테일에 있어서는 가디건 앞 양쪽에 포켓이 있어 기능성을 살리었다<그림3>.

2. 1920년대

1920년대에는 패션잡지에 “Spectator Sports Style”이 소개되어 일반 패션에도 영향을 주었다³²⁾.

1920년대의 스포츠웨어에 나타난 니트디자인의 형태를 살펴보면 남성들은 V넥 풀오버와 가디건 재킷을, 여성들은 솔더 넥의 가디건 재킷을 착용하

<표2> 1910년대의 스포츠웨어에 표현된 니트디자인의 미적 특징

분류	1910년대
형태	상의는 가디건 재킷 type과 트임이 없는 풀오버 type으로 분류됨 V-neck 또는 Round-neck이며 소매가 길고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니트 가디건과 짧아진 스커트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활동의 자유를 부여함
소재 (조직, 종류)	Carl Janzen이 고무편 수영복을 생산, 수영 선수들과 대중들에게 인기 횡편니트만 존재, 조직으로는 몸판은 평편을, 손목과 목에는 고무편을 사용함
색상	판단이 어려움
아이템	테니스복, 골프복, 아이스하키복, 스케이트복 등으로 사용된 가디건 재킷 남, 여 수영복은 원피스 형태
디테일	가디건 재킷의 앞 양쪽에 포켓이 있어 기능성을 살림
디자이너	스포츠웨어를 디자인하기 위한 ‘스포츠 하우스’가 설립됨
대표적 사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1></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2></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3></p> </div> </div>

고 있다. 골프 파티를 위한 아웃도어 활동복으로서
는 루즈하지만 부피가 크지 않은 의상을 착용했다.
테니스 드레스는 리조트 웨어로 받아들여졌으며,
이 당시 유행한 샤넬의 “Jumper Ensemble”은 허리
를 덮는 긴 니트 코트에 무릎 바로 아래 길이에 넓은
주름의 스커트를 착장하는 스타일이었다<그림
4>. 스키복으로는 “Norwegian Suit”라 불리는 옷
을 착용하였는데, 이것은 니트 풀오버와 함께 발목
길이의 니커보커스를 긴 스커트 아래 입는 것이었
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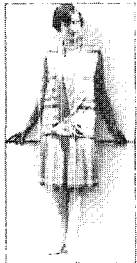


니트의 종류는 대부분 횡편이며, 조직으로는 풀
오버에서 조직변화에 의한 문양이 나타나고 있다.
색상 면에서는 테니스 드레스가 다양한 색상으로
입혀졌다. 아이템은 V넥이나 라운드넥의 풀오버,
숄더넥의 가디건 재킷과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이
보여진다. 디테일은 문양에서 두드러지는데, 스트
라이프 무늬와 기하학적인 패턴이 많이 보여진다.

수영복에서는 몸에 밀착되는 원피스 형태로서<그
림6> 바이어스 재단과 스트랩을 이용한 장식이 보
여진다. 1920년대 스포츠웨어 디자인의 선구자는
코코 샤넬(Coco Chanel)이며 가벼운 저지로 만든
레저용 수트는 비 정장웨어로서 대중적으로 널리
유행하였다.

3. 1930년대

1930년대는 여가선용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공
식적인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스펙테이터
스포츠웨어가 널리 유행하여 많은 패션잡지에 등
장하였다. 골프나 승마 경기의 관람용 스포츠웨어
로는 트워드나 체크의 경쾌하게 보이는 평상복 수
트와 코트에 모자와 구두를 주로 매치하였고, 폴로
게임에 참여하거나 테니스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서는 곤색 블레이저 재킷과 크림색이나 흰색의 주

<표3> 1920년대의 스포츠웨어에 표현된 니트디자인의 특징

분 류	1920년대
형 태	스펙테이터 스포츠웨어가 패션잡지를 통해 소개됨 남성은 아웃도어 활동복으로 V-neck 풀오버와 가디건 재킷 착용함 테니스복으로 허리 길이의 니트에 무릎아래 길이의 주름스커트를 착용, 스키복으로 풀오버와 니커보커스를 긴 스커트 아래 입는 스타일이 유행함
소 재 (조직, 종류)	모두 횡편니트만 존재 남성 풀오버에서 조직 변화에 의한 문양이 대두됨
색 상	테니스 드레스에 다양한 색상이 등장
아이템	남성은 V-neck이나 Round-neck의 풀오버, 여성은 쇼울 칼라의 가디건 재킷,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 스키복의 크로썬 모자
디테일	문양에 있어서 스트라이프 무늬와 기하학적인 패턴 등장함 수영복에서는 바이어스 재단과 스트랩(strap)을 이용한 장식이 자주 이용됨
디자이너	스포츠웨어의 선구자로서 Coco Chanel 이 등장함
대표적 사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4></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5></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6></p> </div> </div>

름 스커트, 모자와 2가지 색의 콤비네이션 슈즈 또는 평상복 길이의 프린트된 실크나 먼 드레스와 밀짚모자를 함께 착용하였다<그림7>. 특히 니트 스웨터와 니커보커즈를 착용한 윈저공의 패션 <그림5>이 이 당시 대중들에게 영향을 주었다³⁴⁾.

또한 1930년대에는 지퍼를 의미하는 슬라이스 패스너(slice fastener, zipper)와 같은 획기적인 발명이 있었는데, 슬라이스 패스너는 다양한 색상으로 제조되어 훅 앤드 아이나 단추 대신 여밈에 사용하게 되었다³⁵⁾. 이 당시의 사냥복과 비행복, 스키복으로 터틀넥의 폴오버 스웨터<그림8>와 골프복으로서 V넥의 가디건 재킷이 보이며, V넥 폴오버와 폴로 티셔츠 스웨터는 스펙테이터 스포츠웨어로서 착용되었다.

니트의 종류는 대부분이 횡편이며, 폴로 티셔츠는 환편으로 보여진다. 아이템은 폴오버 스웨터와 가디건 재킷과 더불어 폴로 티셔츠 스웨터가 추가되었다. 디테일의 특징은 폴오버 스웨터의 넥라인이 V넥, 라운드넥, 터틀넥 등 다양해졌으며, 특히 V넥 스웨터는 넥라인과 소매 끝, 몸판 끝의




고무편을 서로 다른 색상의 배색으로 강조하였다 <그림9>. 기하학적인 패턴의 문양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4. 1940년대

1940년대는 재킷, 블라우스, 니트웨어, 바지와 같이 현대 캐주얼 기성복의 주류인 단품으로 패션 연출을 하는 독창적인 미국 스타일의 스포츠웨어가 창조되었다. 이 새로운 라인을 전개시킨 대표적인 디자이너는 클레어 맥카텔(Claire McCardell)로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입을 수 있는 의복을 디자인하여 스포츠웨어와 포멀웨어의 구분을 약화시켰으며 ‘의복의 캐주얼화(casualness in a dress)’의 대명사가 되었다<그림10>.

니트디자인의 형태를 살펴보면 스키복을 위한 폴오버 스웨터와 골프복 등을 위한 가슴 양쪽에 포켓이 달린 가디건 조끼, 그리고 스키탈 때 보온을 위해 입을 수 있도록 귀를 덮는 터틀넥 스웨터의 superman 모자가 등장하였다<그림11>. 니트의 종

<표4> 1930년대의 스포츠웨어에 표현된 니트디자인의 특징

분류	1930년대
형태	공식적인 스포츠행사에 참여키 위한 스펙테이터 스포츠웨어가 발달함 V넥 폴오버와 폴로셔츠가 스펙테이터 스포츠웨어로 착용되고, 넥라인이 다양해짐
소재 (조직, 종류)	대부분이 횡편니트이며, 폴로셔츠는 환편으로 보여짐 신축성 직물인 latex와 합성섬유 nylon이 최초로 개발됨
색상	Ivory, White, Navy 등 테니스 드레스에 다양한 색상이 이용됨
아이템	터틀넥 스웨터, 폴오버, 가디건 재킷, 폴로셔츠
디테일	폴오버는 넥라인과 소매, 도련의 고무편에 몸판과 다른 색으로 배색 강조됨 무지와 더불어 문양에 있어서는 기하학적인 패턴이 계속적으로 유행함
대표적 사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7></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8></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9></p> </div> </div>

류는 대부분이 횡편이며, 아이템은 폴오버 스웨터에 가디건 조끼와 귀를 덮는 형태의 **superman** 모자가 추가되었다. 디테일은 폴오버 스웨터에서 넥과 어깨 라인에 장식 상침이 보여진다. 또한 가디건 조끼의 포켓 가장자리에는 파이핑처럼 보여지는 장식이 눈에 띈다<그림12>.

5. 1950년대

1950년대에 이르러 여가시간이 늘고 소득이 높아져 여행을 즐기는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스포츠웨어의 유니폼화 경향이 약해지고 스포티브 룩의 개념이 유행하게 되었다³⁶⁾.




특히 나일론이 인기 있는 소재로 대중화되었다. 이 당시 미국에서 중요한 일상복으로 착용되던 세퍼레이트 개념의 니트웨어, 셔츠, 바지와 스커트는 전후 이태리 디자이너들에 의해 유럽 스타일로 변형되어 유행하게 되었다³⁷⁾.

스포츠웨어에 응용된 니트디자인의 형태를 살펴보면 **superman** 모자 형태의 터틀넥 스웨터가 계속적으로 보여지며, 소매길이가 7부 등 다양해졌다<그림13>. 니트의 종류는 대부분 횡편으로 보여지며, 색상에 있어서는 특히 스키복이 다양한 원색으로 화려해졌다<그림14>. 아이템은 상의 외에 니트 원피스가 등장하였고, 디테일에 있어서는 벨트 장식이 보여진다. 수영복은 더욱 몸에 밀착되도록 견고하게 발전하였다 <그림15>.


6. 1960년대

1963년 추동 파리 컬렉션에서는 스포티브 룩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스포츠웨어가 주목을 받게 되어 작업복과 스포츠웨어의 형식이나 감각을 살린 디자인이 정장으로 이용되었다. 실루엣은 기능적인 단순함을 추구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단추나 포켓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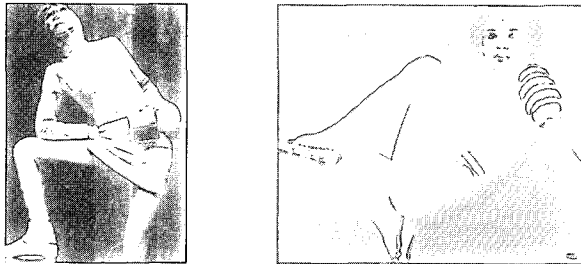
<표5> 1940년대의 스포츠웨어에 표현된 니트디자인의 특징분류

분류	1940년대
형태	재킷, 블라우스, 니트웨어, 바지와 같은 미국의 스포츠웨어가 창조된 스키복을 위한 폴오버와 보온을 위해 입을 수 있도록 귀를 덮는 터틀넥 스웨터의 superman 모자가 등장함 수영복은 사틴가공이 된 탄력성 있는 옷감으로 제작, 비키니 수영복 등장함
소재 (조직, 종류)	대부분이 횡편 니트
색상	강한 색의 무지나 밝은 프린트 사용됨
아이템	폴오버, 가디건 조끼, 귀를 덮는 형태의 superman 모자
디테일	폴오버에서 넥과 어깨라인에 스티치 장식과, 가디건 조끼의 포켓 가장자리에 파이핑 처리된 장식이 눈에 띈
디자이너	미국 스포츠웨어를 시작한 최초의 디자이너로 Claire McCardell 은 스포츠웨어와 포멀웨어의 구분을 약화시킴
대표적 사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10></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11></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12></p> </div> </div>

〈표6〉 1950년대의 스포츠웨어에 표현된 니트디자인의 특징분류

분 류	1950년대
형 태	5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스포츠웨어의 유니폼화 경향이 약해짐 테니스복에 영구기계주름이 사용되고, 소매길이가 7부 등 다양해짐 수영복이 몸에 더욱 밀착, 견고하게 발전되고 스키복은 실용적으로 발전함
소 재 (조직, 종류)	대부분이 횡편 니트
색 상	스키복에 강한 색의 무지나 밝은 프린트가 사용됨
아이템	플오버, 가디건 조끼, 귀를 덮는 형태의 superman 모자, 스키복의 올인원
디테일	허리에 벨트 장식이 두드러짐
디자이너	Claire McCardell 은 의복의 캐주얼화의 대명사가 됨
대표적 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 〈그림13〉 〈그림14〉 〈그림15〉 </p>

〈표7〉 1960년대의 스포츠웨어에 표현된 니트디자인의 특징분류

분 류	1960년대
형 태	기능적인 단순한 실루엣이 추구됨 단추나 포켓 등이 많이 사용되고 후드와 부츠 등과 함께 착용됨 우주복 형태의 Jump Suit가 스포츠카 운전복이나 비행복으로 착용됨
소 재 (조직, 종류)	횡편 니트와 스타킹 조직의 환편 니트가 나타남
색 상	원색의 사용이 증가함
아이템	슬림한 미니 원피스, 몸에 밀착되는 스타킹
디테일	포켓, 지퍼, 후드, 부츠, 벨트장식과, 커다란 선글라스, 허리에 차는 포터블 백 등으로 스포티브 이미지와 우주적 이미지를 강조함
디자이너	발렌시아가, 앙드레 쿠레주, 피에르 가르탱, 이브 생 로랑 등이 활약함
대표적 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 〈그림16〉 〈그림17〉 </p>

이것은 후드나 부츠 등과 함께 착용되기도 하였다³⁸⁾.

또한 플라스틱 지퍼가 개발되어 많은 디자이너들이 지퍼를 활용한 가능성이 강조된 디자인을 하였고, 피에르 가르맹의 점프 수트는 우주복 형태의 코스모스 룩으로서 여성들이 스포츠카 운전복이나 비행복으로 입었다. 이 시기는 모든 계층에 걸쳐 스포티브 감각을 즐겼다<그림16>.

니트디자인의 형태로는 슬림한 미니 원피스에 몸에 밀착되는 니트 스타킹을 착용한 스타일이 유행하였다<그림17>. 니트의 종류는 횡편으로 보이며 색상은 원색의 사용이 증가한다. 아이템은 superman 모자가 달린 미니 원피스, 니트로 된 스타킹이 등장하였으며, 커다란 선글라스, 부츠, 허리에 차는 작은 백 등의 디테일이 스포티브 이미지와 더불어 우주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당시의 대표적인 디자이너인 발렌시아가(Balenciaga), 앙드레 쿠레쥬(Andre Courrage), 피에르 가르맹(Pierre Cardin), 이브 생 로랑(Yves Saint-Laurent) 등에 의해 다양한 스포티브 이미지가 창출되었다.

7. 1970년대

1970년은 스포츠가 유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 당시의 운동 선수들은 높은 인기와 명성을 누렸고 그들의 의상이나 행동은 대중들에게 광적으로 추종되었다. 그들이 착용한 운동복은 대중에게 신체노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 되었다³⁹⁾.

1970년대 초는 인플레이션과 유류 파동으로 보다 편안함을 추구하며 스포티하고 실용적인 패션이 지배적이었고 옷차림이 간소해졌다. 그 예로 다운점퍼, 스트랩팬츠, 조깅웨어, 올인원 트랙수트 등의 스포츠 패션은 편안하고 관리가 용이하였기 때문에 일상복에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⁴⁰⁾.

70년대 중반에는 디스코 열풍과 롤러스케이트의 붐이 일어났으며<그림18>, 70년대 후반부터는 소득 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평상복의 캐주얼화가 두드러졌다. 소재 면에서는 70년대 중반에 신합성 소재인 라이크라(Lycra)가 유행하였다. 라이크라는 1958년 듀폰사에서 개발한 폴리우레탄의 탄성섬유로써 화려한 색상과 광택, 피부처럼 밀착되는 외관으로 주목받았다. 따라서 횡편보다 환편이 많이 이용되었다. 아이템은 다운 점퍼, 스트랩팬츠, 조깅웨어, 올인원 트랙수트 등이 등장하였고, 디테일에는 헤어밴드, 헬멧 등을 사용하였다<그림19>.

<표8> 1970년대의 스포츠웨어에 표현된 니트디자인의 특징분류

분류	1970년대
형태	에어로빅복과 조깅복이 평상복으로 받아들여져 대중화 신합성 소재인 lycra가 유행함
소재 (조직, 종류)	횡편 니트보다 환편 니트가 스포츠패션에 많이 이용되기 시작함
색상	테니스복은 White, Navy, Red, Green 등의 배색이 강조됨. 스키복에 금속성의 밝은 색상이 사용됨
아이템	다운 점퍼, 스트랩 팬츠, 조깅 웨어, 올인원 트랙수트 등이 등장
디테일	헤어 밴드, 헬멧 등을 사용

대표적 사진



<그림18>



<그림19>

8. 1980년대

1981년 올리비아 뉴튼 존(Olivia Newton-John)은 “I Wanna Get Physical”이라는 히트송을 발표했는데, 이 당시의 패션도 마찬가지로였다. 1970년대 말경부터 스펙테이터들은 다시 스포츠의 참여자가 되었다⁴¹⁾<그림20>. 1980년대에는 현대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대와 생활영역의 확대에 의해 생활수준과 소득의 향상을 가져와 여가를 더 중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의 스포츠패션에 나타난 니트디자인의 형태를 살펴보면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아이디어에서 소재나 디자인을 변화시킨 의상들이 유행하였고, 이질적인 소재를 함께 사용하여 스포티한 분위기를 표현하거나 스포티한 단일품목끼리 코디네이션하여 입었다. 즉, 가죽이나 면 니트의 미니스커트, 혹은 짧은 반바지에 빅 스타일의 풀오버 또는 재킷을 입거나 스커트 아래로 꼭 맞는 팬츠를 덧입기도 하였다⁴²⁾. 니트의 종류는 횡편에 못지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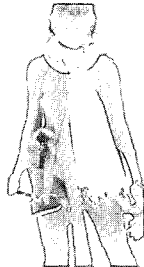
게 환편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색상은 다양한 원색이 사용되었으며<그림21>, 아이템은 타운웨어로서 레깅스, 복서 팬츠, 트레이닝 팬츠, 티셔츠와 폴로셔츠, 사파리 수트 등이 착용되었다. 디테일은 장갑, 머플러, 보호구 등 액세서리의 활용이 증가하였다<그림22>.

9. 1990년대

1990년대는 개인의 생활과 가치관에 가장 큰 가치를 둬으로써 의상의 TPO 개념이 사라지고 일상복과 스포츠 패션간의 구분이 없어지고<그림23>, 각 개인의 감성과 개성에 따라 아이템과 착장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디자이너들이 본격적으로 스포츠웨어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80년대를 거쳐 이 시기에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컬렉션을 통하여 스포츠 감각이 가미된 포멀 웨어를 발표하였다⁴³⁾.

최근의 대부분의 스포츠웨어나 수영복과 같은

〈표9〉 1980년대의 스포츠웨어에 표현된 니트디자인의 특징분류

분류	1980년대
형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아이디어에서 소재나 디자인을 변화시킨 의상들이 유행함 트랙수트는 주부들이 시장을 가고 집안 일을 할 때 착용할 만큼 대중화됨
소재 (조직, 종류)	환편 니트가 두드러지게 증가함
색상	White, Black, Red, Navy 등 다양한 원색이 사용됨
아이템	상의에는 티셔츠와 폴로셔츠, 사파리 수트, 하의에는 레깅스, 레오타즈, 레그워머스, 복서팬츠, 트레이닝팬츠, 트랙수트, 러닝슈즈 등
디테일	스키복, 수상 스포츠복 등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디테일 활용이 증가함 장갑, 머플러, 보호구 등 액세서리의 활용이 증가됨
디자이너	Norma Camali 등
대표적 사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20></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21></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22></p> </div> </div>

피트니스 웨어는 신축성 섬유의 발명으로부터 발달하였고, 이러한 신축성 섬유는 의복에서 진정한 움직임이 가능하게 하였다<그림24>.

니트디자인의 형태를 살펴보면 신축성 소재의 개발로 더욱 몸에 밀착되는 실루엣으로 발전하였다<그림25>. 니트의 종류는 대부분 환편이며, 색상은 비비드(vivid)한 색상과 더불어 네온(neon) 컬러가 등장하였다. 아이템은 원피스, 트레이닝복 등이 있으며, 디테일로는 지퍼, 벨크로 등을 이용한 디자인이 많아졌다. 대표적 디자이너로는 랄프 로렌(Ralph Lauren), 도나 카란(Donna Karan) 노마 카말리(Norma Kamali), 조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등의 디자이너들이 있다.

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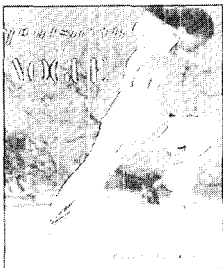


현대사회에 대두된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으로 스포츠웨어는 단순한 운동복의 수준을 넘어 우리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고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현대 스포츠웨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스포츠웨어의 발달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였으며, 특히 스포츠웨어에 적합한 니트 소재로 응용되어진 디자인 사례와 그 특징들을 20세기 스포츠웨어의 발달과정 속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의 요약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 면에서는 크게 테니스, 골프, 아이스하키, 스키, 수영복 등의 액티브 스포츠웨어와 공식적인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스펙테이터 스포츠웨어로 나눌 수 있다. 특히 1960년대 말부터 에어로빅복과 조깅복이 평상복으로 받아들여져 대중화되면서 일상복과 스포츠패션 간의 구분이 없어지고 레깅스, 트레이닝복, 트랙수트 등이 추가되었다.

둘째, 소재 면에서는 20년 주기로 합성섬유나 신소재가 개발되어 스포츠웨어에 표현된 니트디자인에 변화가 있었다. 1910년대의 고무편 수영복 생산, 1930년대의 레이텍스와 나일론의 개발, 1950년대의 라이크라 개발, 1970년대의 스트레치사와 스판덱스의 개발, 1990년대의 신축성섬유의 개발이 그 예이다. 조직에 있어서는 1950년대를 기점으로 50년대 전까지는 횡편 니트가 주를 이루었고, 50년대 이후부터 횡편 니트와 횡편 니트가 공존하다가, 70년대 이후에는 스트레치사의 개발과 함께 환편

<표10> 1990년대의 스포츠웨어에 표현된 니트디자인의 특징분류

분류	1990년대
형태	신축성 소재의 개발로 더욱 몸에 밀착되는 실루엣으로 발전함 수영복, 피트니스복은 신축성 섬유의 발명으로부터 발달함
소재 (조직, 종류)	횡편니트와 환편니트가 공존하는 가운데, 환편니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함
색상	White, Vivid color, Neon color 등이 등장함
아이템	원피스, 피트니스복, 트레이닝복, 싸이클복 등
디테일	야구복, 축구복 등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디테일을 응용 지퍼, 벨크로 등이 이용
디자이너	Ralph Lauren, Miuccia Prada, Marc Jacobs, Donna Karan, Giorgio Armani 등
대표적 사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23></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24></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그림25></p> </div> </div>

니트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셋째, 색상 면에서는 1950년대 이전까지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1950년대 스키복부터 색상이 밝고 화려해지며, 1960년대에 색상이 비비드(vivid) 해지다가 1970년대에는 금속성 색상이, 1990년대에 들어서는 네온(neon) 컬러가 등장하였다.

넷째, 아이템에서는 1970년대 이전에 가디건, 폴 오버, 터틀넥, 모자, 셔츠, 조끼, 원피스 등이 주를 이루던 것이, 1970년대 이후에는 피트니스복의 일상복화로 인하여 레깅스, 사이클쇼츠, 트레이닝복, 트랙수트, 레오타드, 레그워머 등이 추가되었다.

다섯째, 디테일 면에서는 1950년대 이전에는 스티치 장식, 스트랩이 이용되었고, 문양 면에서는 스트라이프 패턴과 기하학 무늬 등이 유행하였다. 1960년대 이후에는 벨트, 포켓, 지퍼, 후드, 부츠 등의 액세서리를 이용하여 스포티브 감각을 표현하였다.

여섯째, 대표적 디자이너로서 스포츠 패션의 선구적 역할을 한 1920년대의 코코 샤넬과 1930-1940년대의 미국의 캐주얼화를 이룩한 클레어 맥카텔이 있다. 이들은 모두 니트를 이용함으로써 실용성, 편안함, 개성표현을 만족시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1960년대에는 발렌시아가, 앙드레 꾸레쥬, 피에르 가르방, 이브 생 로랑에 의해 다양한 스포티브 이미지가 표현되었다. 스포츠웨어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컬렉션을 통하여 스포츠 감각이 가미된 포멀 웨어를 발표하였는데, 랄프 로렌, 미우치아 프라다, 도나 카란, 노마 카말리, 조지오 아르마니 등이 이에 기여한 디자이너들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문헌상에 나타난 사진 자료가 색채나 니트의 조직 면에서 디테일하게 관찰할 수 없었으므로 분석의 한계가 있었고, 제한된 수의 자료로서 분석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2001년 이후의 현대 스포츠패션에 나타난 니트디자인에 관한 후속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1) 김이영 (2003). 스포츠웨어의 디자인 프로세스. *섬유기술과 산업* 7(4), p.457.
- 2) 한은주 (2002). 1990년대 스포츠 패션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
- 3) 전현옥 (2002). 니트웨어의 변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iv-v.
- 4) 엄준희, 김민자 (2003). 1990년대 이후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트렌드 분석. *섬유기술과 산업* 7(4), pp.409-410.
- 5) 김이영 (2003). Op. cit., p.457.
- 6) 임은안 (1999). 현대 스포츠패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 7) 라사라 교육개발원 (1995). *복식대사전*. 서울: 라사라 출판사, p.843.
- 8) 임은안 (1999). Op. cit., p.6.
- 9) 라사라 교육개발원 (1995). Op. cit., p.735, p.738.
- 10) 노혜은 (1992). 1960년대 high fashion에 나타나는 Sportive Fashion. *장안논총* 12, p.851.
- 11) 김지현 (200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스포티브 룩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이후 pret-a-porter collection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 12) 정정미 (1996). 하이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스타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 13) Martin, R. *All American : Sportswear Traditional*. N.Y.: F.I.T., p.10.
- 14) 임은안, 채금석 (2002). 현대 스포츠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9/10), p.1309.
- 15) 엄준희, 김민자 (2003). Op. cit., p.413.
- 16) Ibid., p.412.
- 17) 정홍숙 (1999).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p.369.
- 18) 임은안, 채금석 (2002). Op. cit., p.1310.
- 19) Murray, M. P., 채금석 역 (1998). *패션세계입문*. 서울: 경춘사, p.212, p.247.
- 20) 엄준희, 김민자 (2003). Op. cit., p.413.
- 21) 배순이, 권진 (2002). 니트디자인 연구 - 장애인복을 중심으로. *디자인과학연구지* 4(4), p.36.
- 22) 이순홍 외 (1978). *편물*. 서울: 문교부, p.3.

- 23) 배순이, 권 진 (2002). Op. cit., p.36.
- 24) Ibid., p.36.
- 25) 김계연 (2001). 니트웨어 구매행동 분석을 통한 상품기획.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 26) 주 리 (1988). 컬팅기법을 응용한 니트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 27) 김성련 (2000). *피복재료학*. 교문사, pp.339-341.
- 28) Fiore, A. M. & Kimle, P. A. (1997). *Understanding Aesthetics for the Merchandising and Design Professional*. N.Y.: Fraichild Publication, p.351.
- 29) Bond, D., 정현숙 역 (1992). *20세기 패션*. 서울: 경춘사, p.38.
- 30) Schumberger, L. (1991). *40,000 Years of Fashion Let There Be Clothes*. N.Y.: Workman Publishing, p.329.
- 31) Lee-Potter, C. (1984). *Sports wear in Vogue since 1910*. Abbeville Press, Inc., p.9.
- 32) Gold, A. (1904). *75 Years of Fashion*. N.Y. Happer and Row Publishers. Inc., p.307.
- 33) Buxbaum, G. (ed.) (199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Prestel, p.35.
- 34) 정홍숙 (1999). Op. cit., p.375.
- 35) Ibid., pp.374-375.
- 36) Lee-Potter, C. (1984). Op. cit., p.58.
- 37) 한은주 (2002). Op. cit., p.13.
- 38) 정홍숙 (1999). Op. cit., pp.391-392.
- 39) 정홍숙, 정삼호, 홍병숙 (1998). *현대인파 의상*. 서울: 교문사, p.76.
- 40) 채금석 (1999). *패션디자인의 실무*. 서울: 교문사, p.88.
- 41) Buxbaum, G. (ed.) (1999). Op. cit., p.109.
- 42) 김지현 (2002). Op. cit., p.18.
- 43) 한은주 (2002). Op. cit., p.18.